

朝鮮時代 妃嬪 長衫 및 繡甫老의 一考察

— 儀軌 服玩圖說을 中心으로 —

金 明 淑

成均館大學校 家政大學

A Study on Some Female Ceremonial Robes (Jangsam and Sooboro etc.) of the Choson Dynasty

Myoung Sook Kim

College of Home Economics, Sung Kyun Kwan University

(1984.11.22 접수)

Abstract

This is to study some female court costumes, Jangsam and Sooboro etc.(長衫, 繡甫老), which seem to had been used as ceremonial robes. There is no remains, and only a little written materials can be used.

The Kook-Chang-Dogam Eui Gues(國葬都監儀軌) give us some knowledges on the shapes, materials, embroideries and the usages of them.

After surveying the provisions of the Eui-Gues, Auther arrived at conclusions as follow;

1. Jangsam(長衫) set is the counterpart of the Myunbok(冕服) set.
2. Sooboro(繡甫老), worn over the Sang(裳), is short, divided into three parts from the middle of the length, and the peonies(牡丹) are embroidered at the bottom of the three parts.
3. Jangsam(長衫) is accompanied by susik(首飾), which seems to be a kind of headband, and a pair of gloves(手衣).

I. 머릿 말

本 研究의 目的은 朝鮮時代 妃嬪의 服飾가운데, 명칭은 알려져 있으나, 그 形態를 잘 알 수 없었던, 長衫, 繡甫老, 手衣 등이 어떠한 體制 및 깃수, 材料 등으로 마련되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研究의 主 資料로는 현존하는 歷代 妃嬪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이며, 國朝五禮儀序例, 國朝喪禮補編, 增補文獻備考, 朝鮮實錄, 歷代 妃嬪의 嘉禮 및 殯殿·魂殿都監儀軌이며, 그 外의 先行 研究를 참고로 하였다.

國朝五禮儀序例에 보면, 王 및 王世子の 喪때에는 服玩用 服飾으로서 冕服 一襲을, 妃嬪의 內喪때에는 長衫·繡甫老 등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며, 그 크기는 平時 體制의 半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이러한 규정을 指針으로 한 歷代 儀軌의 服玩圖說에는 服玩品으로서의 長衫, 繡甫老등의 형태, 색, 재료, 깃수 등이 나타나 있다. 본고는 이를 고찰함으로써, 실제의 복식 체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服玩用으로 마련된 복식품에 관한 기록은 世宗實錄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며²⁾, 그 품목 및 내용은 國朝五禮儀序例 제정 때에 이르러 다소 변경, 정비

되고 있다. 또한 儀軌를 통해 볼 때, 宣懿王后 國葬(1730年) 때까지 마련된 服玩用 복식의 명칭, 품목, 색 등이 國朝五禮儀序例 규정과 일치되고 있어, 그 규정에 따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으나, 英祖 27年(1751年)의 孝純賢嬪 禮葬 때부터는 服玩用 복식의 품목을 대폭 감소시켜 간소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선 國朝五禮儀序例 服玩규정을 살펴 보고, 世宗實錄에 나타난 복식 품목과의 비교 검토한 다음 序例의 규정을 지침으로 한 服玩用 복식의 채색도 및 설명이 기록된 역대 儀軌의 服玩圖說을 고찰하여, 실제 絲의 복식 체계 규명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國朝五禮儀序例에서의 服玩규정

國朝五禮儀序例, 凶禮, 服玩圖說의 규정을 보면, 앞서 말한 바처럼 服玩品은 평상시의 절반 크기로 만들며, 服玩用 복식으로는 外喪 때 冕服一襲을 마련하고, 內喪 때는 首飾, 紅綾袂長衫, 粉紅紵絲繡甫老, 紅紵絲衣, 藍羅裳, 白綾袂襪裙, 靑羅帶, 白襪, 靑履, 手衣, 副同靴, 溫鞋 등을 각각 한벌씩 마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服玩의 圖形은 國朝五禮儀序例 吉禮부분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중 內喪用 服玩用 服飾圖는 생략되고 있다. 즉 冕服圖는 吉禮 祭服圖說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長衫, 繡甫老 등의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볼 때, 長衫 등의 內喪用 服飾은 그 형태가 당시 잘 알려져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³⁾. 한편, 國朝五禮儀序例의 內喪 服玩品과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는 복식품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바로 世宗實錄 2년 9월條에 보이는 元敬王后 遷奠儀 때 마련된 복식 품목이다. 이는 지금까지는 殮衣, 明器로서의 服飾, 喪服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⁴⁾. 그러나 國朝五禮儀序例 및 역대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의 服玩用 服飾역시 明器 등의 기록과 더불어 나타나 있어, 이들 복식품이 宮中 內喪 때의, 副葬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⁵⁾에서 공통되고 있다. 또한 기록된 복식품의 종류나 그 명칭, 색, 재료 등에서 많은 유사점이 보이고 있으니, 이를 비교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世宗 2년, 元敬王后 遷奠儀 때 마련된 복식품목은 國朝五禮儀序例의 服玩用 복식품목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같은 용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世宗代의 품목은 國朝五禮儀序例 제정 때 가감되기도 하였고, 명칭, 색, 재료 등이 다소 변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國朝五禮儀序例 服玩규정을 지침으로 한 역

<표 1> 元敬王后 遷奠儀의 服飾品과 國朝五禮儀序例의 服玩用服飾品의 비교

출처 문헌 服飾類別	世宗實錄의 服飾品目	國朝五禮儀序例의 服玩服飾品目
首飾	—	首飾 1
長衫	紛紅綾袂長衫 1 白苧布長衫 1	紅綾袂長衫 1
繡甫老	紛紅段子繡甫老 1	紛紅紵絲繡甫老 1
衣	紫的段子袂隔音 1 紅段子赤古里 1	紅紵絲衣 1
裳	藍羅袂赤尔 1 白苧布赤尔 1	藍羅裳 1
襪裙	白綾袂襪裙 1 白苧布襪裙 1	白綾袂襪裙 1
帶	紅段子帶 2	靑羅帶 1
苔衣	白苧布苔衣 1	苔衣 1
手巾	手巾 1	手巾 1
手衣	紅段子五指手衣 1	手衣 1
足衣	白麻布足巾 2	白襪 1, 靑履 1
靴	紛紅段子同靴 1	副同靴 1
鞋	紛紅段子溫鞋 1	溫鞋 1
汗衫	白綿, 白苧布汗衫, 翻汗衫	—
裏衣	白苧布裏衣 1	—

대 儀軌의 服玩圖說에는 序例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복식의 형태, 치수 등이 나타나 있어, 실제의 體制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므로, 그를 고찰한 바는 다음과 같다.

III. 儀軌에 나타난 妃嬪 服飾

현존하는 조선시대 妃嬪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 가운데, 仁宣王后 國葬(1674年)에서부터 貞聖王后 國葬(1751年)까지 모두 10種의 儀軌에 服玩品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宣懿王后 國葬都監儀軌까지의 7種의 儀軌에는 服玩品의 채색도가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孝純賢嬪 禮葬都監儀軌부터는 服玩品目이 감소되어, 그림은 없고, 선정된 服玩品目만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감소된 품목은, 紅苧絲衣, 粉紅苧絲繡甫老, 白綾袂襪裙, 手衣, 白鍊布襪, 苔衣, 靑履, 溫鞋 등이다.

한편 「增補文獻備考」에 보면 英祖代 이전에 이미 服玩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遺衣를 服玩服飾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⁶⁾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 妃嬪의 服玩用 복식은 國朝五禮儀序例 규정을 지침으로 하여 마련되었는데, 孝純賢嬪 禮葬에서부터는 그 규정 품목

을 줄였으며, 평상시의 遺衣로 대신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가지 服玩복식 가운데, 특히 그 형태가 밝혀지지 않은 妃嬪의 長衫, 繡甫老, 手衣, 首飾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長衫

長衫은 조선시대의 역대 嘉禮때 妃嬪에게는 물론 尙宮에서 騎行內人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층에 걸쳐 마련되었던 여자 예복으로, 이미 고려시대에도 妓女에게 착용하였던 기록이 보인다⁷⁾. 太宗實錄에서는 五品 이하의 正妻는 露衣를 금하고 長衫만을 허락하도록 상소하고 있어⁸⁾, 長衫이 露衣에 비해 品格이 낮은 복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1. 形態

조선시대 妃嬪의 長衫 형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다만 嘉禮때 마련된 衣次 가운데 同正감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것이 直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¹¹⁾, 그 길이는 무릎까지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²⁾ 또한 조선 말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나타난 女服을 長衫이라 기록하고 있으나¹³⁾, 그 服飾이 長衫이라는 근거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歷代 妃嬪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에는 服玩으로 마련된 長衫의 圖說이 있어, 이러한 미해결점을 다소 보완해 준다. 儀軌에 그려진 妃嬪 長衫의 형태는 直領으로, 동정이 있으며, 右襟으로 겨드랑이까지 완전히 포개어져 여미도록 되었으며, 고름은 없다. 소매의 배례선은 곡선 아닌 직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진동너비와 袖口의 치수가 거의 같게 그려져 있다. 그림을 볼 때 妃嬪 長衫의 앞뒤 길이는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도 1〕 長衫：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1684年)

樂學軌範의 衣圖를 보면, 앞뒤 길이가 다른 복식을 그릴 때는 그 前面圖에 길이가 짧은 단의 선도 그려 넣고 있는데¹⁴⁾, 長衫圖에는 이러한 선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長衫의 옆치리이다. 儀軌마다 다르게 옆선을 2줄 혹은 3줄로 층을 이루며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¹⁵⁾, 이로 볼 때, 妃嬪 長衫의 옆치리는 단순히 앞뒤를 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옆이 트였거나, 혹은 옆에 주름을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¹⁶⁾. 한편 長衫의 바탕은 紅色으로, 同正은 흰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재료 설명에 別領次로 白綾長 8寸, 廣 1寸이 기록되어 있어, 別領次가 동정감으로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이와 같이 妃嬪의 長衫이 直領이며 동정이 달린 점은 嘉禮때 마련된 長衫과도 같다. 그런데, 안쪽에 면 동정이 짧아, 그 끝이 곁에서 보이도록 달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늘날의 동정다는 법과 다르게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儀軌의 服飾圖는 정확한 치수로서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재료, 색, 설명과 함께 살펴볼 때, 그 대체적인 形制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결국 服玩의 妃嬪 長衫圖說은 현존 最古의 妃嬪 國葬都監儀軌인 仁宣王后 國葬都監儀軌(1674年)에서부터 英祖 6年(1730年)의 宣懿王后 國葬까지 거의 같으므로, 이 기간 중의 長衫의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朝鮮初의 형태 역시 이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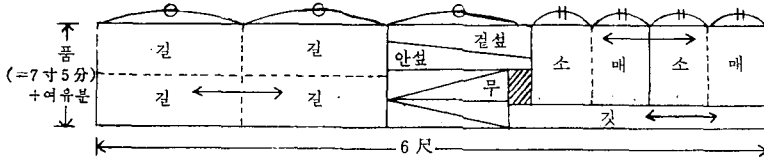
그러나 孝純賢嬪 禮葬때부터는 服玩品目이 감소되면서 服飾圖說도 생략되어, 그 이후 服玩服飾의 형태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朝鮮末의 「단초발기」에 “다홍장삼단초일쌍”이란 기록이 있어¹⁸⁾, 長衫이 계속 朝鮮末까지 마련되었고, 앞 여밈을 단추로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니, 長衫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妃嬪 長衫의 색, 재료, 치수 등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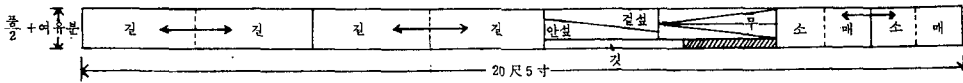
2. 色, 材料, 值數

世宗 元敬王后 遷奠儀때 마련된 長衫에는 粉紅綾袂 長衫과 白苧布長衫이 있다. 그러나 國朝五禮儀序例 및 역대 嘉禮都監儀軌에서는 妃嬪 長衫을 거의 모두 紅色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世宗代의 紅染금지에 따른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¹⁹⁾, 遷奠儀때 마련된 같은 品目 가운데, 紅段子 赤古리나 紅段子 五指手衣등이 있으므로, 紅染금지에 따라 紅色 대신 粉紅色으로 長衫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길 길이(長)=1尺 3寸, 품(腰廣)=7寸 5分
 사용 尺度 : 布帛尺(1尺≒46.80 cm)
 옷감의 폭 : 35~40cm정도 내외로 추정됨
 [도 2] 服玩用 長衫의 마름질 추측도.



※ 尺度는 布帛尺(1尺≒46.80cm)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며, 옷감의 폭은 35~40cm 내외로 추정됨.
 [도 3] 妃嬪의 嘉禮用 長衫 마름질 추측도.

역대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를 보면, 服玩用 長衫은 嘉禮때와 마찬가지로 紅綾袂長衫인데, 內外²⁰⁾는 大紅大段으로, 안(內拱)은 藍綃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妃嬪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 嘉禮때 마련된 妃의 長衫은 겉, 안 모두 大紅色인 반면, 嬪의 것은 겉이 大紅色, 안(內拱)이 藍色으로 되어 있어, 內拱의 색으로서 妃嬪을 구별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嘉禮때 마련된 長衫과 服玩用 長衫은 색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한 服玩用 冕服과 長衫의 차이점이기도 하다²¹⁾.

儀軌에 나타난 妃嬪의 服玩用 長衫은 그 길이를 1尺 3寸으로, 품(腰廣)을 7寸 5分으로 하여 만드는데, 大紅大段이 6尺, 藍綃가 5尺 9寸²²⁾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嘉禮때 마련한 妃嬪의 長衫은 겉감이 20尺 5寸²³⁾이라고 하였을 뿐²³⁾, 실제 長衫의 깃수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服玩用 長衫은 평상시 크기의 半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과연 실제로 그 규정이 지켜졌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실제 嘉禮때 마련된 長衫의 깃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여, 이를 服玩用 長衫깃수와 비교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즉, 服玩用 長衫은 [도 2]와 같이 마름질하였을 것으로 보았다²³⁾. 이렇게 볼 때, (길길이×3)+(소매넓이×4)=총소요량 6(尺)이란 식이 성립된다. 길길이는 1.3尺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소매넓이는 0.525尺이란 수치가 나온다.

이와 관련지어 볼 때, 嘉禮用 長衫의 마름도는 [도 3]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렇게 볼 때, (길길이×6)+(소매넓이×4)=20尺 5寸이란 식이 성립되며, 服玩用 長衫의 길길이 : 소매넓이=1.3 : 0.525이므로, 윗 식을 계산하면 嘉禮用 長衫의 길이는 2.69尺, 소매넓이는 1.086尺이란 수치가 나온다. 또한 服玩用 長衫의 품 : 길이=0.75 : 1.3이므로 이를 대입, 계산해 보면 嘉禮用 長衫의 품은 1.55尺이란 수치가 나온다. 이상의 결과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嘉禮用 長衫의 추정깃수와 服玩用 長衫의 깃수와 비교

깃수	용도별			비교
	嘉禮用	服玩用		
길이(長)	2.69 尺	1.3 尺		약 半
품(腰廣)	1.55 尺	0.75 尺		약 半
소매넓이	1.086 尺	0.525 尺		약 半

물론 이러한 계산은 시점등의 차이를 엄밀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깃수를 추정해 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 妃嬪에게 着用되었을 長衫의 깃수를 대략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며, 또한 服玩用 服飾이 과연 國朝五禮儀序列 규정에 따라 平時體制의 半으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의도에서였다. 고찰 결과, 服玩用 長衫은 嘉禮用 長衫의 半으로 제작되었을 것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고 보며, 다른 服玩用 服飾역시 이러한 가정속에서 실제의 깃수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服玩用 長衫은 가례 때와 달리 衿袖등은 달

지 않고, 嘉禮때의 大紅帶 대신 靑羅帶를 마련하고 있다. 즉 嘉禮때는 7尺 길이의 大紅帶를 착용하였으나, 服玩으로는 3尺 1寸의 길이로 하여, 帶의 길이 역시 嘉禮때의 절반정도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敍襲用으로서의 長衫

조선시대 妃嬪의 嘉禮때 長衫이 마련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앞서에서 妃嬪의 喪때 服玩用 服飾으로 마련된 바를 살펴보았다. 이 외의 또 다른 用例는 대부분의 妃嬪 殯殿魂殿都監儀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妃嬪의 喪때에 沐浴, 襲, 敍의 과정에서 長衫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宣祖妃 懿仁王后의 殯殿魂殿都監儀軌(1600年)를 보면, 襲할 때의 外備衣櫛 가운데 大紅雲紋紗長衫을 포함하고 있으며, 英祖妃 宣懿王后의 喪때(1730年)에는 沐浴절차에 多紅花紋紗長衫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長衫은 또한 妃嬪의 小敍, 大敍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長衫에 珮가 부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國朝喪禮補編圖說」에는 珮의 珮玉과 銀鈎는 제거하고, 그대신 唐粉과 泥金으로 그린다고 규정하고 있음에서이다²⁶⁾. 이로 볼 때, 國朝喪禮補編간행 이전에는 小·大敍때 마련된 長衫에 실제로 佩를 달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國朝喪禮補編 규정은 그 이후에도 지켜졌으니, 高宗妃 明成王后나 純明妃의 殯殿魂殿都監儀軌(각각 1895~97年, 1904年)에서 확인된다²⁷⁾.

또한 藏書閣에 소장된 「喪葬」(장서각 도서번호 2-2959) 가운데 「內安堂 李貴人의 喪儀에 關한 豫算書」에는 李貴人의 喪禮中, 沐浴襲 때 마련한 長衫에 胛飾背, 佩玉, 後垂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長衫에 이와 같은 것을 부가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長衫은 大禮服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長衫은 고려시대부터 조선말 1900년대 初에도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는 그 유물이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다²⁸⁾.

4. 圓衫·활옷·長衣와의 관계

이와 같이 長衫은 오랜동안 다양한 신분층에 걸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이 보이지 않고, 문헌에 他服飾과 혼동되어 기록된 까닭에²⁹⁾ 원삼이나 활옷³⁰⁾, 長衣³¹⁾ 등과 관련지어 고찰하려는 견해가 있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長衫은 圓衫과 같은 儀軌 등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²²⁾, 燕山君 日記 11년 6월의 기록에서, 당시의 圓衫이 團領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四禮便覽에서도 圓衫의 형태가 對衿이며 앞이 짧고 뒤가 길다고 하여, 圓衫과

長衫의 형태가 다른 服飾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대 妃嬪의 殯殿魂殿都監儀軌를 보면 長衫과 함께 長衣가 기록되어 있어, 長衫과 長衣가 별개의 服飾임을 알려주고 있다. 즉 宣祖妃 懿仁王后의 襲때(1600年)에는 長衫과 함께 白苧布長衣, 紫의 袂長衣가 기록되어 있고, 小敍때 鴉青匹段袂長衣, 大敍때 紫의 襦長衣, 鴉青匹段襦長衣, 紫의 襦長衣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宣懿王后의 段殿魂殿都監儀軌(1730年)의 小敍衣櫛 가운데에는 袂長衣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료로는 袂길이 16尺 6寸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니, 소요량이 20尺이 넘는 長衫에 비해 袂가 적게 드는 옷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長衣는 그 衣次의 기록으로 볼 때, 숨을 두기도 하였고, 長衫에 비해 다양한 色으로 마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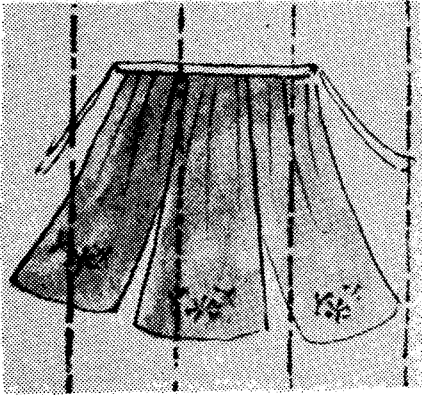
활옷 역시 그 형태가 長衫과는 다르며³²⁾, 옷에 많은 수를 놓았던 것으로, 형태로나 문헌기록상으로도 長衫과 뚜렷한 관련을 지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 長衫은, 원삼, 활옷, 長衣등과는 다른 고유한 옷으로,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착용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나. 繡甫老

繡甫老에 대한 기록은 世宗 二年, 元敬王后 遷奠儀의 복식품목 가운데 처음 보이며, 아직까지는 다른 문헌에서 그 사용된 예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에는 紛紅段子 繡甫老라 기록되어 있어, 그 색과 재료를 알 수 있고, 명칭으로 볼 때 수가 놓여진 옷으로 생각되나 그 위치나 문양 등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樂學軌範」³⁴⁾에 裳은 俗稱 甫老라고 하여 甫老가 裳과 같은 下衣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繡甫老의 형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바가 없으며, 다만 “甫老란 몽고어의 寶里에서 온 것으로, 繡甫老는 오늘날의 스타치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³⁵⁾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미해결점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역대 妃嬪의 服玩用 繡甫老 圖說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繡甫老의 겉은 紛紅苧絲로, 안(內拵)은 白絹로 만든다. 세 폭을 이어 만드는데, 길이의 卅까지는 세 폭을 붙여 박고, 그 아래로는 세 폭을 따로 하며, 각 단 끝에 모란[牧丹]을 수 놓는다. 형태는 赤尔와 같고, 길이는 8寸에 3푼너비로 한다. 白絹로 허리와 허리끈을 단다”고 하였고, 재료로는 紛紅紵絲 2尺 5寸 5分, 白絹 2尺 5寸, 꿰매는 실 紅眞絲 3分, 수실로 白絲, 紅眞絲, 草綠眞絲, 紛紅眞絲 각 1錢씩 든



〔도 4〕 繡甫老：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1730年)

다고 하였다.

이같은 형태의 繡甫老는 지금까지의 유물이나 회화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선초기 出土 遺物 가운데 스란치마와도 그 體制, 文樣 등이 다르다³⁶⁾. 또한 嘉禮 때 마련된 膝襪赤尔는 숨을 두었던 것으로 보여³⁷⁾, 결국 繡甫老는 스란치마와 다른 服飾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繡甫老의 수 문양을 살펴보면, 세 폭의 것이 같으며, 그 재료로 볼 때, 모란 꽃은 紅, 白, 粉紅色로, 잎은 草綠色으로 수 놓은 것으로 보여, 색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儀軌로 볼 때, 仁宣王后國葬(1674年) 이후 宣懿王后國葬(1730年)까지는 繡甫老가 服玩用 服飾品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의 國葬都監儀軌부터는 服玩品에서 생략되고 있어, 그 후의 착용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繡甫老는 지금까지는 服玩으로 쓰인 예 밖에는 그 착용된 바를 알 수 없으나, 服玩用 服飾은 실제의 복식을 토대로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평상시에도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服玩用 繡甫老의 길이는 8寸으로, 裳은 9寸으로 규정되었고, 기록된 순서로 볼 때, 繡甫老는 長衫 다음으로 裳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고, 裳은 長衫의 밑받침 옷으로 생각되는 衣다음에 기록되어 있어, 裳을 입고 그 위에 繡甫老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繡甫老는 의례적이고 장식적인 용도로, 裳위에 짧게 입었던 치마류로 생각된다.

다. 手衣

元敬王后 遷奠儀 때 마련된 ‘服飾品目 가운데 紅段子 五指手衣’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명칭으로 보아 홍색장갑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형태나 치수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國朝五禮儀序例 服玩圖說에는 內喪의 服玩品에 ‘手衣’란 것이 있어, 이것이 바로 遷奠儀 때의 五指手衣와 같은 종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序例에서 手衣의 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역대 妃嬪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 服玩圖說에 나타난 手衣의 색, 형태, 치수 등은 다음과 같다.

즉, “手衣의 모양은 손바닥 형태처럼 만들며, 겹 안 모두 白絹로 만든다. 전체 길이는 4寸, 손바닥 너비는 1寸 3分, 손가락 길이는 8分이 되게 한다. 재료로서 白絹 8寸, 실은 白絲 2分이 든다.”고 하였다. 이상의 圖形과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妃嬪의 服玩으로 마련된 手衣는 흰색이며 겹으로 만든 것이는데, 팔목이 비교적 긴 장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手衣는 服玩用으로 뿐만 아니라, 嘉禮 때에도 妃嬪에게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喪服 가운데 手衣가 포함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³⁸⁾, 이렇게 手衣는 손을 가리기 위한 儀禮用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역대 가례도감의 衣櫛에는 長衫과 더불어 紅羅五指(五脂, 伍脂)란 것이 기록되어 있다³⁹⁾. 이는 元敬王后 遷奠儀 때 마련된 ‘紅段子五指手衣’와 紅色五指라는 점에서 일치되고 있어, 五指 역시 장갑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世宗代에는 五指手衣라고 불리웠던 장갑이, 그 후 嘉禮 때에는 ‘五指’(五脂)라는 명칭으로, 服玩用으로는 ‘手衣’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고, 手衣는 白色으로, 五指(脂)는 紅色으로 그 용도를 구별하여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 형태는 조선 초기부터 큰 변화없이 중·후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英祖 後期 考純賢嬪 禮葬 때부터는 服玩品目에서 제외되어 점차 그 用例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手衣는 조선시대 궁중여성의 服飾文化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나라 여성용 장갑의 역사가 오래된 바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라. 首飾

역대 嘉禮都監儀軌의 妃嬪衣櫛 가운데에는 長衫에 대한 首飾의 기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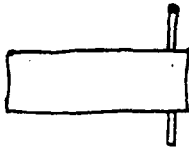
그런데 光海君日記 二年 五月의 기록에 보면, ‘命婦



〔도 5〕 手衣：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1684年)

를 회합할 때 입찰할 사람의 복식은 평시라면 마땅히 長衫에 首飾을 해야하며……”⁴⁰⁾라는 기록이 있어, 長衫에 따르는 首飾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首飾의 색이나 형태는 이에 나타나 있지 않다. 國朝五禮儀序例 규정에는 服玩으로 首飾을 기록하였고, 역대 儀軌의 服玩圖說에 보면, 首飾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 결과 안은 黑段으로 하고, 길이는 8寸 7分, 너비는 4寸 1分이며, 양 끝에 끈을 단다고 하였다. 또한 그 재료로는 冒段 1尺, 靑綃가 半半骨로 1尺이 든다고 하였으니, 首飾의 안팎은 검은 비단으로, 양쪽 끈은 靑綃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용법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끈이 있음으로 머리에 맺을 것으로만 추측된다.

한편 이 首飾은 世宗代에는 마련치 않다가 國朝五禮儀序例 규정때 服玩品目に 넣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도 6〕 首飾 :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1674年)

Ⅲ. 맺음 말

이상 歷代의 妃嬪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에 나타난 服玩圖說을 主 資料로 하여, 妃嬪 服飾가운데 그 형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長衫, 繡甫老, 首飾, 手衣등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國朝五禮儀序例 服玩圖說가운데 內喪의 服玩服飾 규정은 朝鮮時代 中·後期까지 지켜졌으나, 때로는 遺衣로서 대신 사용되기도 하였고, 英祖 27年(1751年)부터는 그 品目이 감소되고 간소화되었다.

2) 世宗 二年, 元敬王后 遷奠儀때 기록되어 있는 服飾品目은 服玩用으로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服飾品은 國朝五禮儀序例 제정때 다소 가감 정비되었다.

3) 朝鮮時代 宮中 外喪의 服玩服飾으로는 冕服이 內喪의 경우에는 長衫, 繡甫老 등이 마련되어, 翟衣 아닌 長衫이 冕服에 대응하는 大禮服으로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4) 조선시대 妃嬪의 長衫은 直領·右袵이고 同正이 있고 고풍은 없다. 소매는 거의 직배태이며 앞뒤 길이는 같고, 옆은 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형태는 조선말까지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長衫은 고려이후 조선말까지 기녀, 상궁, 나인 등 다양한 신분의 여성에게 착용되었으나, 신분에 따라 長衫, 형태나 색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長衫은 服玩用외에 妃嬪의 殯襲服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이 때는 珮玉, 後垂, 胛背등이 부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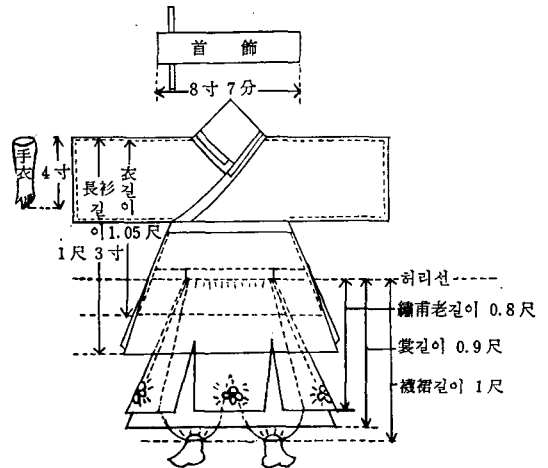
7) 長衫은 圓衫이나 활옷의 前身이 아니며, 殯殿喪禮殿都監儀軌에 長衣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 長衣와도 다른 服飾이었다.

8) 繡甫老의 형태는 赤尔와 같고, 3폭을 이어 만든 것으로, 裳의 길에 입는 의례용 치마로 보인다.

9) 繡甫老는 스란치마와 그 형태 및 문양등이 다른 별개의 복식으로 생각된다.

10) 妃嬪의 嘉禮 및 喪禮때에는 장갑이 마련되었는데, 嘉禮때에는 五指(指), 服玩用이나 喪服用으로는 手衣란 명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형태는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追記〉 儀軌에 나타난 服玩服飾의 낱수 및 기록순서를 참고로 하여 [도 7]과 같은 착용 추측도를 그려 볼 수 있었다.



〔도 7〕 妃嬪 服飾의 着用 추측도

〔주〕

- 1) 國朝五禮儀序例 卷 5, 凶禮 服玩圖說에 “體制半於平時~”라 하였다.
- 2) 世宗實錄, 世宗 2년 9월條의 元敬王后 遷奠儀의 服飾品目으로, 후술하겠거니와, 이는 服玩用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 3) (주 1)과 같음. “~其圖形見於吉禮者爰易知者令皆爰之其說者于後”라 기록되었다.
- 4)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303(1973)에서는 “明器로서 魂殿에 모신 服飾類”라 하였고, 高福男, 「韓國服飾用語의 變遷史의 研究」, 韓國民俗學 14. 民俗學會(1981)에는 殮衣로 해석하였다.
- 5) 國朝五禮儀 및 歷代 國葬都監儀軌를 고찰해 본 결과, 明器, 服玩, 贈玉, 贈帛 등은 모두 陵의 副葬品으로 생각된다.
- 6) 增補文獻備考 卷 68, 禮考 15, 國恤 4, 葬制 가운데 英祖 33년의 기록에 보면, “이미 服玩으로 遺衣를 쓰고 있으니~”하는 내용이 있다.
- 7) 世宗實錄, 世宗 27년 8월 丁未에 ‘高麗時女妓皆服黃長衫~’이란 기록이 보인다.
- 8) 太宗實錄, 太宗 12년 6월 丁卯
- 9) 樂學軌範, 女妓服條의 黑長衫의 깃 形態는 直領이 아니며 同正이 달리지 않았다. 高福男은, “朝鮮朝 初期의 女子服飾, 99p에서 중후기의 長衫에는 同正이 縫裁되어 직선깃인 것이 확인되는데, 거기에 비교할 때, 長衫은 같은 名稱에 깃의 形制가 달라, 시대에 따라 변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妃嬪의 長衫과 他신분의 長衫과는 그 재료 분량이 다르게 마련되었음을 볼 때, 신분에 따른 복식형태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 10) (주 6)과 같음. “內喪則於衣服五禮儀所載制度既非禮冠翟衣也其制異常~”이라고 하였다.
- 11) 高福男, 朝鮮朝 初期의 女子服飾, 亞細亞女性研究 第20-21輯(1981-1982).
- 12) 白英子, 嘉禮都監을 통해 본 法服(翟衣)의 附隨服飾과 衣襖(露衣, 長衫)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2, 141, (1978)
- 13)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428, (1973)
- 14) 樂學軌範 卷 9, 冠服圖說가운데 衣圖를 보면 ‘前短後長’인 衣를 표현함에 있어서, 前面圖에 밑단을 2줄 그어 나타내고 있다.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의 ‘露衣樣’도 이와 같이 그려져 있어 앞뒤 길이가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白英子, 앞 글.
- 15) 長衫圖가 나타나 있는 7種의 儀軌를 시대순으로 놓고 볼 때, 長衫의 線은 3줄→2→3→2→2→2→3 줄로 그리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이 長衫의 형태변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같은 長衫의 形態를 이와 같이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것이 가 아닌 한다.
- 16) 忠南 文珠寺 服藏遺物인 高麗時代 白苧布袍의 옆에는, 길과는 별도의 감으로 주름분을 넣고 있다. 世宗代 元敬王后 遷奠儀때 마련된 服飾品目에도 白苧布長衫이 들어 있어, 재료 및 색이 공통됨을 보게 된다.
- 17) 역대 嘉禮때 妃嬪의 長衫次에 포함된 同正재료는 白綾 長 1尺 5寸, 廣 1寸 5分으로 기록되어 있어, 服玩用 長衫의 別領次가 대략 절반 크기로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 18) 高光林,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女子禮服에 관한 研究(1), 仁川教大論文集 11집, 10 (1976)
- 19) 高福男, 朝鮮朝 初期의 女子服飾, 亞細亞女性研究, 第20輯, 102 (1982)
- 20) 이에서 길감(外)만이 아닌 ‘內外’로 기록된 것은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1) 金明淑, 朝鮮時代 冕服의 考察, 梨花女子大學院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에 보면, 王과 王世子の 喪때 마련된 服玩用 冕服은 冕旒의 수, 圭의 색과 깃수, 衣와 裳에 그려진 章文의 수 등에 차이를 두도록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2) 역대의 嘉禮都監儀軌에는 妃嬪의 長衫次로 大紅匹段이나 大紅鄉織 20尺 5寸 혹은 1匹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匹의 尺수를 확실히 할 수 없어, 이에서는 20尺 5寸을 연구 깃수로 삼았다.
- 23) 長衫圖를 보면 밑으로 내려 갈 수록 약간 넓어져, 설이나 무를 달았을 것으로 본다. 이들의 길이는 길길이보다 대체로 짧은 것이나, 길길이에 여유분을 주는 대신, 설길이를 길길이와 같게 잡아 계산하였다. 또한 儀軌에는 소매길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길이는 확실치 않음을 알려둔다.
- 24) 註 23)과 같다.
- 25) 國朝五禮儀序例 服玩圖說의 규정에 보면, ‘衣襖用布帛尺’이라고 하였으니 服玩用 服飾을 제조할 때에 布帛尺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李恩卿의 「朝鮮王朝 布帛尺에 관한 研究」梨花女子大學院 석사학위 청구논문 22 p (1980)에 보면, 朝鮮時代(成宗代 國朝五禮儀 이후 高宗代 大韓禮典까지) 布帛尺의 길이는 오늘날의 m 법으로 환산할 때, 약 46.80cm 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圖 2, 圖 3에서의 옷감의 폭은 7寸 5分+여유분으로, 이는 國朝五禮儀序例 규정에 따라 布帛尺으로 측량하였을 것인데, 이를 오늘날의 m 법으로 환산해보면, 약 35cm+여유분이 된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용

- 된 段의 폭은 35~40cm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6) 國朝喪禮補編圖說, 小斂條에 보면, ‘內喪, 小內喪 長衫 畫珮同’이라 기록되어, 長衫에도 冕服의 珮와 같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설명을 보면 ‘去珮 玉銀鈎以唐粉畫珮泥金畫鈎’라 되어 있다.
- 27) 이상의 高宗妃 및 純明妃의 殯殿魂殿都監儀軌에 보면 小斂때 마련된 長衫에 ‘畫珮玉’이라고 附記하고 있다.
- 28) 지금까지 보고된 出土女服 가운데 長衫이란 명칭은 보이는 않으나, 그 가운데 長衫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 29) 宋文欽의 「閒靜堂集」과 李緯의 「四禮便覽」에는 大衣와 唐衣, 大袖, 圓衫, 長衫 등이 서로 구별지어 설명되어 있지 않다.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453 (1983) 第3版 참조.
- 30) 朴東媛, 圓衫에 관한 研究, 1976학년도 梨花女子大學院 석사학위 청구논문, 8.에 보면 “婚禮服으로서 는 역시 활옷의 前身이라 할 長衫”을 들고 있다
- 31) 高福男, 韓國服飾用語의 變遷史의 研究, 韓國民俗學 14. (1981)에 ‘조선초기의 長衫은 중·후기의 串衣로, 후기의 장옷(長衣)으로 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 32)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新丘文化社, 88. (1983)에 보면, 義和君 吉禮時의 群夫人衣服발기에 ‘다 흥던 즈금홍장삼…… 초록원삼이 있어……’라고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長衫과 圓衫이 같은 儀軌나 定例에 기록된 예는 적지 않다.
- 33) 은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활옷을 보면, 앞설이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고, 앞이 뒤보다 짧으며, 뒷길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등, 長衫의 형태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韓國民俗大百科, 高大民族文化研究所, 日常生活, 衣食住, 178.
- 34) 樂學軌範, 蓮花臺服飾과 女妓服飾條.
- 35) 金東旭, 앞 글. 85.
- 36) 檀國大學校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開館 一周年紀念 第二回 壽衣特別展圖錄에 (1982.5) 수록된 1400年~1450年頃の 南陽 洪氏 ‘치마’와 1580年대의 淸州 韓氏 ‘치마’를 보면, 9폭 혹은 12폭으로, 폭이 모두 이어져 있고, 길이의 중간부분에 膝襪이 두단 장식되어 있어, 繡甫老와는 다른 體制임을 알 수 있다.
- 37) 昭顯世子 嘉禮 및 (1627年), 顯宗明聖王后 嘉禮때 마련된 衣襪에는 襦赤尔次에 膝襪이 포함되고 있어, 스란치마에 숨을 두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 39) 金東旭, 앞글. 305에 보면, 太宗 8年과 世宗 28年에 마련된 喪服가운데 手衣가 포함되고 있다.
- 40) 五指, 五脂, 伍脂는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 41) ‘傳曰會命婦時入祭人服飾在平時則當用長衫首飾矣……’라 하고 있다.